

南·北·美·日 4자회담 가능성

■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

동북아 평화체제 화두로 부상
北美-北日 관계 급진전 될수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조짐이다. 북핵 6자회담의 순항을 바탕으로 정전상태인 한반도의 질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그리고 과거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진전이 한꺼번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엮는 4자 정상회담이 연내 추진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으며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내부에 평화 에너지가 팽창하는 분위기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정부 발표대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 에너지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북핵 6자회담과 연결된다.

특히 6자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성사시킨 토대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시 6자회담의 진전을 돕는 선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북의 이날 정상회담 발표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는 21~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특히 주목을 끈다. 이 자리에서는 6자 외교장관회담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이런 관심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정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4+2형식’의 외교무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이 구상은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한 8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6자회담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마친 북측 수석대표 김경일(왼쪽) 주 유엔 대표부 공사 등 대표단이 우리측 관계자의 환송을 받으며 웃으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4)의 외교장관이 핵심당사자가 돼서 정전상태인 한국전쟁을 끝내고 러시아와 일본(2)이 관련국이 돼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9월 유엔 총회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6자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판을 확대해 4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을 특별 초청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으로 ‘완화될 기미’를 보일 경우 6자회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의 관계정상화도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 전쟁까지 치른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구조에 탈피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 동북아 정세변화의 축은 역시 북한 수뇌부의 확실한 북핵 폐기의 지다. 만일 김정일 위원장이 현재의 적극적 비핵화 행보를 ‘일회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특정시점에 가서 반드시 변화의 흐름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사업 탄력받나

남북경협 등 ‘휘파람’

현대아산 대북사업 ‘날개’...마무리 단계 개성공단사업 호재로

제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결정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대아산은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인해 금강산 하부 관광객이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대북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남북이 이달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에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은 날개를 달게 됐다.

현대아산은 6월 북측에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의 최종안을 북측에 전달한 상태로, 양측의 최종 협의를 거쳐 금강산종합개발계획은 늦어도 9월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아산은 계획에 따라 금강산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면 현대아산의 금강산 개발사업은 남북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쾌속운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강산종합개발계획은 현대아산이 해금강에서 원산까지 19억8천348만㎡의 땅을 개발해 관광지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강산 관광객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객은 하루 1천 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당시에는 유람선을 이용한 해로 관광밖에 되지 않았고 관광료가 비싸 금강산 관광객이 크게 늘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온 개성공단사업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결정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002년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개성시 봉동리 일대 330만 규모로 추진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지난해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고, 10

만㎡ 남북 송전선과 폐수처리장(일일 3만ℓ 처리), 용수시설(일일 6만ℓ), 폐기물처리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끝났다.

개성공단사업은 1단계 사업은 현재 개발공사는 완료되고 전체 분양도 마무리된 상태로 1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완료하게 되면 사실상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495만㎡규모의 공단과 330만㎡규모의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2단계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이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완화가 앞으로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최근 1단계 분단지 입주기업 선정안과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경의선 운행, 금강산관광산업 활성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계 “안보 리스크 해소 한반도 투자 활성화”

삼성 등 4대 그룹 대북진출 본격화엔 유보적

이달 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재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회복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남북교역이 당장 활성화되기에 아직 난관이 많아 대북진출을 본격화 하기에 이르지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분위기가 정착된다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가 해소되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개최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대북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북한의 자위개발, SOC 투자 등 남북 경협사업의 대폭적인 확대에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

북간 경제협력과 평화정착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조기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표적인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최근 1단계 분단지 입주기업 선정안과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 현대, 기아차, LG, SK 등 주요 그룹들은 ‘환영’ 입장에는 경제단체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대북진출을 본격화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 美·中·日 등 주변국 반응

美 “놀라운 사태 진전”...회담 추이 관심

남북 정상회담 전격 발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일단 환영하면서 회담 추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오후(한국 시각 8일 오전) 주미 한국대사관측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놀라운 사태 진전(surprising development)”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 같은 사실을 미국 정부 요원에 즉각 알리겠다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것으로 전해졌다.

의명을 요구한 다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측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기 전 미국측과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미국은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

원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며,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 등에도 이번 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기대했다.

◇중국=중국은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로부터 논평을 요구받고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은 모두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대변인은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7천만 인민의 근본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엔 좋은 성과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일본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비핵화 분야의 진전을 기대하는 한편으로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8일 오전 외무성의 아지 소타로(谷正太郎) 사무차관을 총리실로 불러 상황을 분석, 향후 대응 등을 협의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까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야당 간부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 등을 위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연합뉴스

현직 교통사고분석사 직강학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007년 10월 14일

7.30(월), 8.4(토), 8.6(월)

실용 전문가에 의한 직강, 제1회 시험을 맞이함

전남고시학원

전남고시학원 010-827-5105

공인중개사

8월 1회 첫전도 개강

복합요약형과 + 단임분체제

주목관리사

광주고시학원

027-8503

071-0332

KALTOUR

(유)산해여행제자신업

010-572-9333

제주도	조용기 한라산 정박	120,000원
제주도	조용기 요도여행	140,000원
제주도	조용기 여행 체험 숙박	150,000원
제주도	조용기 금오산 여행	160,000원

010-572-9333